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교육' 실시

글 조성만기자 | 승인 2025.10.27 17:55 | 10면

공사 전 과정 위험요인 사전 제거·재해예방 활동 강화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는 27일 창녕지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유민중)는 최근 발생하는 건설공사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27일 창녕지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사장이 직접 주관하여 실시하였으며 공사감독자의 법적책임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감독자의 안전관리의무, 현장 안전점검 강화방안, 사고 사례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민중 창녕지사장은 "사업현장의 안전한 안전의식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며, "감독자 스스로가 안전의 최일선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녕지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사 전 과정에서의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재해예방 활동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조성만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성만기자